

## 사실주의에 대한 변증법적 재론

— 프레드릭 제임슨의 *The Antinomies of Realism*과 ‘정동’

이윤종\*

1. 서론: 제임슨의 『사회적 형식들의 시학』 기획 연작
2. 사실주의 개념의 재정의
3. 사실주의의 양대 원천
  - 3-1. 서사적 충동: 이야기와 소설의 이분법 재고
  - 3-2. 정동, 혹은 신체의 현재성: 사실주의의 정동 효과
4. 사실주의의 이율배반적 요소들
5. 결론: 제임슨과 시간성, 그리고 다중

### 국문요약

본고는 프레드릭 제임슨의 2013년 저작, *The Antinomies of Realism*을 통해 21세기에 다시 부상하는 예술적 사실주의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정동의 문제를 논해보고자 한다. 20세기 후반에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제임슨은 지난 세기에 상실되었던 ‘느낌(feeling)’의 문제, 특히 ‘정동(affect)’이라는 주제를 19세기의 유럽 사실주의의 특성으로 제기하며 사실주의를 재검토한다. 스피노자의 철학으로부터 유래한 라틴어 어원의 영어 단어, affect는 2016년 국내 학계에서도 번역어로서 ‘정동’과 ‘정서’, ‘감응’ 중 어떤 단어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로 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제임슨은 정동이 사실주의를 모더니즘이나 포스트모더니즘과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라고 주장한다. 따

---

\*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조교수.

라서 본고에서는 제임슨이 사실주의의 양대 원천으로 규정한 '서사'의 개념을 '정동'의 문제와 함께 재고해 보는 동시에, 그의 최근 이론적 관심사라 할 수 있는 시간성과 운명의 문제를 함께 다뤄보며, 사실주의와 모더니즘의 이항대립에 대해서도 재고해 볼 것이다.

(주제어: 사실주의, 프레드릭 제임슨, 이야기, 서사, 소설, 느낌, 정동, 신체, 운명, 천명, 다중, 시간, 시간성, 장르,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변증법, 현대성, 우발성)

## 1. 서론: 제임슨의 『사회적 형식들의 시학』 기획 연작

20세기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였다. 문화와 예술의 미학적 양식의 역사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지만, 삶과 일상의 양상이라는 생활사적 관점에서도 그러하다. 따라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은 미학 용어일 뿐 아니라, 물질적 재화와 문화 산업의 대량생산과 소비 체제 하에서 일상을 영위하는 현대인의 지역적, 계급적, 젠더적 생활 방식, 즉 '버나쿨라 모더니즘(vernacular modernism)'을 뜻하기도 한다.<sup>1)</sup> 미학의 관점에서 모더니즘이 인간의 이성과 언어를 중시하며 예술의 형식적 실험과 다양한 시도를 꾀하는 양식이라면,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연속적으로 계승하며 변용시키는 동시에 모더니즘에 반(反)하기도 하며 나타난 예술 창작 사조이기도 하다. 굳이 예술 사조가 아니더라도 사유의 방식에 있어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거나 이분된 요소를 종합해서 도출되는 결론, 즉 변증법적 합(合, synthesis)을 '해체(deconstruction)'하고 이성과 합리성, 언어의 논리성(logos)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철학적 방식, 즉 데리다(Jacques Derrida)로 대표되는

1) 다음을 참조할 것. Miriam Bratu Hansen, "Mass Production of the Senses: Classical Cinema as Vernacular Modernism," *Modernism/Modernity*, Vol. 6, No. 2, 1999, pp.59-77.

후기 구조주의적 철학도 포스트모더니즘이라 지칭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sup>2)</sup>

20세기 후반에 데리다와는 다른 사유 체계 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을 미학적 양식으로서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이를 통해 전지구적 석학으로 자리매김한 이가 바로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이다. 문화 및 문화 이론의 석학임에 분명하지만, 제임슨의 논의는 거의 언제나 열렬한 찬성과 반대를 동시에 유도하며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경우가 많다. 다작으로 유명한 그의 저작물들 중에서도 제임슨의 대표작으로 꼽힐 수 있는 『다국적 자본주의 시대의 제 3세계 문학』("Third-World Literature in the Era of Multinational Capitalism", 1986)과 『포스트모더니즘, 또는 후기 자본주의의 문화적 논리』(*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1991, 이하 『포스트모더니즘』)가 특히 그러하다. 소논문과 저서의 각 제목에서부터 유추되는 것처럼, 제임슨은 포스트모더니즘을 '후기 자본주의의 문화적 논리'로 보고 있으며, 전지구적으로 확장된 20세기의 후기 산업 자본주의 시대에 대량으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문화적 양식의 일환으로 제 3 세계 문학 전체를, 저 유명한 혹은 악명 높은, '내셔널 알레고리(national allegory)'로 규정한다.<sup>3)</sup> 제 3 세계 문학은 사적이고 내밀한 일화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예외 없이, 근대화

2) 다음을 참조할 것. Jacques Derrida, *Of Grammatology*, trans. Gayatri Chakravorty Spivak,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4. 데리다의 모든 저서와 논문들이 '해체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그의 초기 저작이며 대표작인 위의 책은 특히 언어의 문제, 즉 글쓰기(writing)와 말하기(speaking) 사이의 차연(différance), 즉 불어로는 한 단어이지만 영어로는 각기 차이(differ, difference)와 지연(defer, deferment)을 뜻하는 difference에 기초한 해체적 사유를 추구한다.

3) 다음을 참조할 것. Fredric Jameson, "Third-World Literature in the Era of Multinational Capitalism", *Social Text*, No. 15, 1986, pp.65-88. Fredric Jameson,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1).

와 자본주의화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제 1 세계의 제국주의와의 생사의 투쟁”을 벌이며 공적이고 정치적이고 국가적인 담론을 알레고리화한다는 것이다.<sup>4)</sup> 제임슨의 ‘내셔널 알레고리’론은 그의 다른 저작들에도 이어지는데, 일례로 『지정학적 미학: 세계 체제에서의 영화와 공간』(*The Geopolitical Aesthetic: Cinema and Space in the World System*)의 2부 2장에서 그가 행하는 대만 영화, 〈공포분자〉(*The Terrorizers*, Edward Yang, 1986)의 분석이 특히 그러하다. 쉽 없이 노력했으나 승진에 실패하고 이혼까지 당하는 의사이자 부르주아인 남자 주인공이 제 1 세계에 편입되고 싶은 욕망을 현실화하지 못하는 제 3 세계, 대만의 표상이라는 것이다.<sup>5)</sup> 모든 제 3 세계 문학이나 문화 텍스트가 그러한 국가적, 민족적 알레고리를 담고 있다는 제임슨의 논지에 대해 이미 비서구의 남성 학자들, 특히 아이자즈 아마드(Aijaz Ahmad)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권의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이 여성과 소외된 계층을 고려하지 않는, ‘백인 남성 좌파 이론가’의 편협한 세계관이라 비판한 바 있다.<sup>6)</sup>

제임슨의 문화 이론에 대해서는 본 연구자도 양가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내셔널 알레고리’론은 완전히 수용할 수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이론적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민족주의적 색채가 워낙에 강한 한국의 대중문화에도 적용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동시에, 젠더 연구의 관

4) Jameson, "Third-World Literature," p.68.

5) Fredric Jameson, "Remapping Taipei," *The Geopolitical Aesthetic: Cinema and Space in the World System*, Indiana University Press, 1992, pp.114-157. 프레드릭 제임슨, 『지정학적 미학 - 세계 체제에서의 영화와 공간』, 조성훈 역, 현대미학사, 2007.

6) 다음을 참조할 것. Aijaz Ahmad, "Jameson's Rhetoric of Otherness and the "National Allegory"" in *Social Text*, No. 17, 1987, pp.3-25. Caren Kaplan and Inderpal Grewal, "Transnational Feminist Cultural Studies: Beyond the Marxism/ Poststructuralism /Feminism Divides," in *Between Woman and Nation: Nationalisms, Transnational Feminisms, and the State* eds. Caren Kaplan, Norma Alarcón, and Minoou Moallem, Duke University Press, 1999, pp.349-363.

점에서나 지역학/한국학 연구에 있어서나 완전히 적용하기에는 대단히 위험하기도 하고 문제적인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sup>7)</sup> 제임슨의 포스트모더니즘론도 마찬가지이다. 20세기 후반에 전지구화하는 후기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을 요지로 하는 그의 좌파적 포스트모더니즘론은 남성 엘리트 모더니스트의 입장에서 모더니즘의 형식, 언어, 이성, 남성 중심주의에 대한 향수와 갈망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sup>8)</sup> 또한 헤겔(G. W. F. Hegel)적 변증법으로부터의 이탈을 피하는 데리다와 달리, 제임슨은 지속적으로 변증법적 사유를 추구하며 부정(negation)과 초월(transcendence)을 모두 포괄하는, 높은 수준으로 '고양(sublation)'된 문화 형식, 즉 모더니즘 형식을 갈망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임슨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으로 개인화된 "부르주아적 자아(ego), 혹은 [스피노자(Baruch de Spinoza)적] 단자(單子, monad)의 종말"을 들고 있으며, 이를 "정동의 쇠락(the waning of the affect)"이라 부른다.<sup>9)</sup> 더 나아가 이는 "[개인의 독특한 예술적 스타일의 종말]이기도 하여, 노르웨이 화가 뭉크(Edvard Munch)의 <절규>("The Scream," 1910)와 같은 모더니즘 회화 작품에서 느껴지는 정서 및 정동이나 예술가의 독특한 스타일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sup>10)</sup> 특히 그는 사실주의와 모더니즘의 경계선 상에 놓

7) 다음을 참조할 것. Yun-Jong Lee, "Woman in Ethno-cultural Peril: South Korean Nationalist Erotic Films of the 1980s,"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21, No. 1, 2016, pp.101-135.

8) 프랑스 페미니스트 이론가, 이리가라이(Luce Irigaray)는 서구 철학의 계몽(enlightenment), 즉 태양의 빛(light)과 시각(vision), 이성, 논리에 대한 전통적 중시를 남성 중심주의로 규정한 바 있다. 이리가라이는 서구 (남성) 철학의 시조라 할 수 있는 플라톤(Plato)의 동굴의 우화에서 착안하여 암흑의 동굴에 갇혀 있다가 빛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 거울(speculum 혹은 looking glass, 후자는 루이스 캐롤의 『거울 나라의 앨리스』(*Through the Looking Glass*)의 거울이기도 하다)에 반사되는 태양 빛의 다른 면을 발견하는 과정을 여성 철학의 역사로 해석한 바 있다. 다음을 참조할 것. Luce Irigaray, *Speculum of the Other Woman* trans. Gillian G. Gill,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

9) Jameson, *Postmodernism*, p.15.

인 네덜란드 화가 반 고흐(Vincent Van Gogh)의 〈신발〉("A Pair of Boots," 1886)에서 느껴지는 농민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완전히 배제된 포스트모더니즘 회화의 예로 팝 아트의 창시자, 앤디 워홀(Andy Warhol)의 〈다이아몬드 더스트 슈즈〉("Diamond Dust Shoes," 1980, 이하 〈다이아몬드〉)를 꼽는다. 워홀의 그림은 『포스트모더니즘』의 1991년판의 표지를 장식하고 있기도 하다. 제임슨은 화려함과 패션의 매력만이 가득한 〈다이아몬드〉에서는 '상품 물신주의(commodity fetishism)'만이 포착될 뿐이며 거기에는 "해석의 여지해석을 불러일으키는 몸짓(hermeneutic gesture)"가 없다고 단언한다.<sup>10)</sup> 요컨대 모더니즘의 예술품들은 '작품'이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의 예술품들은 '상품'에 지나지 않아 거기에서는 어떠한 감흥이나 분석의 욕망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기계 복제 시대에 대량생산되는 예술품, 특히 사진이나 영화에는 단 하나의 진품만 존재하던 과거의 창작방식에서 우리나라는 '아우라(aura)'가 부재하다고 분석한 벤야민(Walter Benjamin)의 논의를 떠올리게 한다.<sup>11)</sup> 그러나 벤야민이 대량·대중 예술품의 등장이 오히려 종교적 의식에 기생해서 창작되던 과거의 예술품과는 다른 가능성, 즉 대중의 적극적 예술 수용과 정치화를 낳게 되었다고 보는 반면, 제임슨은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한다.

따라서 반 고흐의 초기 사실주의적 회화에서 노동자/농민의 정서를 발견했던 제임슨은 19세기 유럽의 사실주의 예술 작품들 속에서 포스트모더니즘 문화산업에서는 쇠락한 '정동(情動, affect)'을 되찾아 보려 한다. 그 일환으로 완성된 저서가 2013년에 출판된 『사실주의의 이율배반적 요소들』(*The Antinomies of Realism*, 2013, 이하 『사실주의』)이다.

10) Jameson, *Postmodernism*, p.15.

11) Jameson, *Postmodernism*, p.8.

12) 다음을 참조할 것. Walter Benjamin, "The Work of Art in the Age of Mechanical Reproduction," *Illuminations* trans. Harry Zohn, Schocken Books, 1968, pp.217-251.

『사실주의』는 『포스트모더니즘』에 이은 제임슨의 『사회적 형식들의 시학』(*The Poetics of Social Forms*)이라는 방대한 기획연구의 일환으로 일종의 연작을 구성하는 저작이다. 다작의 연구자답게 그 사이에 그는 연작을 완성하는 다른 저서들, 즉 『현대성의 특이성: 현재의 존재론에 대한 에세이』(*A Singular Modernity: Essay on the Ontology of the Present*, 2002, 이하 『현대성』), 『미래에 대한 고고학: 유토피아라는 욕망과 과학 소설들』(*Archaeologies of the Future: The Desire Called Utopia and Other Science Fictions*, 2005, 이하 『고고학』) 및 다른 저서들을 출간했다. 또한 연작의 일부인 ‘알레고리’에 대한 저서, 『합축: 알레고리의 화성학』(*Overtones: The Harmonics of Allegory*)이 출판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sup>13)</sup> 『사회적 형식들의 시학』(이하 『시학』)이라는 기획 연작의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시리즈는 사실주의,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의 순으로 진행되어온 19세기와 20세기의 예술 형식의 역사성을 맑스주의적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 가지 형식의 사이사이에 그의 주요 관심사라 할 수 있는 알레고리와 유토피아에 대한 탐구를 장르에 대한 연구와 함께 진행하는 셈이다. 『시학』시리즈가 아닌 다른 저서들에서도 제임슨은 사실주의와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에 꾸준히 학문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온 바 있지만, 『포스트모더니즘』, 『현대성』, 『사실주의』는 역순으로 사실주의,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의 역사적 형식에 대해 집대성하는 연구서라 할 수 있다.

다소 부연 설명이 긴 서설이었으나, 본고는 이에 따라 제임슨의 『사

13) 제임슨은 헤겔에 대한 자신의 연구서에서 이를 밝힌 바 있다. Fredric Jameson, *The Hegel Variations*, Verso, 2010, p.126. 이 외에도 각 책의 서문의 마지막 문장에서 기획 연작에 대한 언급을 잊지 않고 하고 있다. 『사실주의』의 서문에서는 책이 연작의 3권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포스트모더니즘』과 『현대성』에 이은 세 번째 연작이라는 뜻이라 볼 수 있다.

실주의』와 사실주의의 예술 형식에 대한 그의 변증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제임슨을 비롯해 서구에서 21세기에 다시 부상하는 사실주의에 대한 학문적 관심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sup>14)</sup> 『사실주의』는 서문 및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과 1부에서는 사실주의와 그 이율배반적 요소들에 대한 논의와 그 요소들의 변증법적 화합 내지는 불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2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세 가지 시론으로 구성되어 각각 시간, 전쟁의 재현 및 역사 소설에 대해 논한다. 서문과 1부는 사실주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저작인 맑스주의 이론가, 루카치(Georg Lukács)의 『소설의 이론』이 행하는 서사 형식에 대한 역사적·변증법적 접근을 따르는 듯하면서도 차별적이고 보다 진전된 논의를 펼친다. 루카치는 현대 세계의 ‘총체성(totality)’을 담보할 수 있는 미학 형식으로 소설을 꼽고, 그 중에서도 19세기 유럽의 사실주의 소설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sup>15)</sup> 제임슨의 사실주의론이 루카치의 것과 구분되는 근거가 바로, 앞서 언급한 ‘정동’이다. 제임슨의 관점에서 볼 때, 포스트모더니즘 예술 작품에서는 ‘쇠락’한 정동이 사실주의 작품들 속에서는 넘실거리다 못해 넘쳐흐르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제임슨은 그 예로 다양한 소설가들, 즉 프랑스의 에밀 졸라(Emil Zola), 러시아의 톨스토이(Leo Tolstoy), 스페인의 베니토 페레스 갈도스(Benito Pérez Galdós), 영국의 조지 엘리엇(George Eliot)의 작품들을 들어 그 정동의 흐름을 세세하게 분석한다.

14) 2000년 이후 영미권에서 발간된 사실주의 연구서로 제임슨의 저서를 포함해 대표적으로 다음을 꼽을 수 있는데, 피터 브룩스(Peter Brooks)나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와 같은 걸출한 저자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다. Peter Brooks, *Realist Vision*, Yale University Press, 2005. Mark Fisher, *Capitalist Realism: Is There No Alternative?*, Zero Books, 2009. Hubert Dreyfus and Charles Taylor, *Retrieving Realism*, Harvard University Press, 2015.

15) 다음을 참조할 것. Georg Lukács, *The Theory of the Novel: A Historico-Philosophical Essay on the Forms of Great Epic Literature* trans. Anna Bostock, MIT Press, 1971.



본론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제임슨이 21세기에 새롭게 정립하는 사실주의에 대한 이론을 본격적으로 자세히 들여다 볼 것이다. 그 전에 제임슨이 재정의하는 사실주의의 개념이 무엇인지부터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2. 사실주의 개념의 재정의

사실주의는 시대에 따라, 논자에 따라 상대적인 개념으로 정의되어 왔다. 따라서 많은 논자들이 사실주의를 다른 수많은 예술 형식들과 구별 짓는다. 제임슨이 열거하는 대로 사실주의는 흔히 로망스(중세 기사극), 서사시(고대 영웅담), 멜로드라마, 이상주의적 영웅물(idealism), 자연주의(naturalism), 동방 설화(oriental tale), 모더니즘과 구분된다.<sup>16)</sup> 사실주의 형식 내에서도 부르주아 사실주의와 사회주의 사실주의가, 영화에서는 할리우드 사실주의와 그것에 대항하는 전복적 형식이 구분되었음은 물론이다. 이 중에서도 사실주의와 모더니즘의 이분법적 구분이 가장 일반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대립 구도 속에서 사실주의는 이상화되거나 비판의 대상이 되는 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제임슨은 이처럼 상대화된 사실주의에 대한 관점에서 탈피해, 그것을 “역사적 형식 혹은 양식”(4)으로 바라본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사실주의는 “(지식이나 진리에 대한) 인식론적 요구가 미학적 이상으로 가장(masquerade)하여 나타난 혼종(hybrid) 개념으로, 공통분모가 없는 [지식 체계와 미학이라는] 이 두 가지 차원들에 치명적인 결과(fatal consequences)를

16) Fredric Jameson, *The Antinomies of Realism*, p.2. 이하 이 책의 인용은 본문에 쪽수 표시.

초래”(5-6)하면서 나타나는 형식이다. 따라서 제임슨은 사실주의를 둘러싼 이분법적 이율배반적 요소들 그 자체 및 이를 해결하려 했던 그간의 시도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그것을 변증법적으로 재정의하려 한다. 즉, 사실주의를 그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불가피하게 결합되어 나타나는 역사적이고 진화적인 과정”인 동시에 그 “출현과 발전이 단번에, 한꺼번에 사실주의를 자체적으로 무효화시키고 부패시키며 소멸(dissolution)”(6)되어온 경로라 정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은 생명체의 생로병사나 역사적 흥망성쇠의 여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역설(paradox)’과 ‘변칙(anomaly)’의 과정으로 ‘모순(contradiction)’이나 ‘아포리아(aporia)’에 가깝다. 따라서 제임슨은 아포리아를 장애물에 막혀서 오도가도 못 할 때 출구(path)의 부재가 아니라 그것을 출구에 대한 ‘장래성(promise)’ 있는 사유로 정립하는 데리다의 입장을 따르되, 데리다와 달리 “변증법 그 자체(the dialectic itself)”로서의 “아포리아적 사유(aporetic thinking)”, 즉 “변증법적 실험(a dialectical experiment)”(6-7)을 감행한다. 앞서 서론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변증법에 대한 제임슨의 신념이 데리다의 해체주의적 포스트모더니즘과 매우 큰 차별성을 갖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드러내는 대목이다.

따라서 제임슨은 변증법적으로, 아포리아적 사유 방식으로 사실주의에 접근하면서 사실주의가 종말을 맞이한 두 번의 연대기적 시점에 주목한다. “스토리텔링과 이야기 속에서의 사실주의의 계보학”의 종말이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정동의 문학적 재현 속에서 사실주의가 미래에 소멸”(10)되는 시점이다. 이는 제임슨이 과거-현재-미래의 삼분화된 시간성 속에서 ‘현재’와 ‘미래’를 규정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생기는 종점이다. 따라서 사실주의는 과거에만 소멸되었던 것이 아니라 미래에 소멸되기도 하는 것이다. 제임슨은 이 두 종점이 제대로 파악되어야만

사실주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정립될 수 있다고 단언한다. 이에 따라 사실주의는 “스토리텔링의 순수한 형식이 장면적(scenic) 상술(elaboration), 묘사, 그리고 특히 정동적 투입(affective investment)에의 충동과 함께 공생(symbiosis)”(11)하며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 공생 관계를 통해 “사실주의가 장면적 현재(a scenic present)를 향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한편, 장면적 현재는 “실제적으로는 이야기나 말하기(récit)의 힘을 우선적으로 형성하는 다른 시간성들을 비밀스럽게 혐오”(11)한다는 역설을 안고 있기도 하다. 그야말로 사실주의는 외재적으로서만이 아니라 내재적으로도 이율배반적 요소들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주의를 둘러싼 외재적 이율배반적 요소들을 구성하는 두 가지 내재적 이율배반적 요소가 바로 스토리텔링 및 이야기와 정동적 재현이다. 제임슨은 이 두 요소를 사실주의의 ‘양대 원천(twin sources)’이라 부른다. 이제 그 양대 원천을 자세히 살펴볼 차례이다.

### 3. 사실주의의 양대 원천

제임슨은 사실주의 형식의 ‘양대 원천(twin sources)’으로 ‘서사적 충동(narrative impulse)’과 ‘정동(affect)’을 꼽는다. ‘정동’에 대해서는 ‘신체의 현재성(the body's present)’이라는 부연 설명을 덧붙인다. 이 양대 원천의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일례들을 짚어보는 『사실주의』의 1부는 책의 2/3 가량에 해당한다. 1부에서 제임슨은 19세기 서구의 사실주의가 ‘서사적 충동’과 ‘정동’의 형태와 양상들 간의 불안정하고 역사적으로 특수한 긴장의 변증법적 산물이라 역설한다. 본 장에서는 제임슨이 꼽는 이 두 가지 사실주의의 원천을 구분해서 각각 세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두 힘은 “회복불가능한 적대관계(irrevocable antagonism)”<sup>(11)</sup>를 형성하기도 하다. 그 적대관계와 변증법적 화해 내지는 와해를 살펴 보기 위해, 우선 서사적 충동이 무엇인지부터 검토해 보자.

### 3-1. 서사적 충동: 이야기와 소설의 이분법 재고

제임슨은 사실주의 소설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서사 전반(narrative in general)’을 ‘스토리텔링의 충동(a storytelling impulse)’이라 부른다. 이를 ‘충동’이라 명명하는 이유는 이야기나 서사라는 것이 고대부터 중세를 거쳐 근대까지 단순히 소설에 선행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스토리텔링은 18세기와 19세기의 전환기에 소설이라는, 말그대로 ‘새로운(novel)’ 형식이 나오기 시작한 후에도 사실주의와 새로운 관계와 연관성을 형성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왔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에의 욕망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이야기(tale)’로 이는 신화, 서사시, 구비 문학, 판타지 등의 형태에 유연하게 녹아 들어가는 “구조적 변용성(structural versatility)”<sup>(15)</sup>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고대 이래 인간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강한 욕망이 세대를 초월하며 끈질기게 지속되어 마침내 새로운 서사 형태인 소설을 탄생시키게 되었는데, 이러한 서사 충동이 사실주의 소설의 양대 원천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1장에서 제임슨은 이야기를 영어인 tale보다 불어인 récit로 지칭하는데, 이는 1920년대에 소설(roman)과 이야기(récit)를 구분한 라몽 페르난데즈(Ramon Fernandez)로부터 시작된 이항대립 구조가 프랑스의 지드(André Gide)와 사르트르(Jean-Paul Sartre)를 경유해 21세기에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지드는 récit가 “개인의 독특한 존재나 운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반해 소설은 “다양한 운명과 이야기의 ‘교차로(carrefour)’이자 합류

점”이라고 논한다.(17) 사르트르는 *récit*를 일화(anecdote)나 과거의 “경험에 대한 억압된 승배”를 표하는 형태로 보고 경멸을 표하는 한 편, 소설, 특히 실존주의 소설이야말로 과거-현재-미래의 닫힌 형태가 아니라 “자유를 위해 개방된 현재, 개방성(an open)을 위한 현재, 정해지지 않은 미래를 재정립(reestablish)”할 수 있는 형식임을 강조한다.(18) 실존주의 소설은 “개방된 현재를 재창조할 수 있는 서사적 도구로서의 유연성”을 지니고 있어, 그 속에서는 “현재가 새로이 써지고 수정될 수 있는 만큼 과거도 고정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다.(18)

사르트르의 소설과 이야기의 이분법에 찬동하는 것은 아니라 해도, 제임슨은 사르트르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만큼, 사르트르가 *récit*를 경멸하는 근거가 되는 “회복불가능성(irrevocability)”에 주목한다. 소설과 달리 고정된 시간성을 지닌 *récit*는 죽음처럼 되돌릴 수 없는 것이기에, 사르트르는 *récit*에서 ‘진정성의 결여(inauthenticity)’를 발견하고 이를 비판했다는 것이다. 제임슨은 이야기의 회복불가능성을 죽음 및 ‘운명(destiny, fate)’과 연결시켜, 사르트르가 실존적 현재를 운명 앞의 시간, 더 나아가서는 이야기(*récit*) 그 자체 앞의 시간으로 상정했다고 해석한다.(21) 물론, 영미권의 서사학(narratology)으로 넘어오면, 프랑스와 달리, 이야기와 소설의 대조보다는 ‘말하기(telling)’와 ‘보여주기(showing)’의 이항대립 구조가 강조된다. 소설가이자 이론가인 헨리 제임스(Henry James)가 ‘시점(point of view)’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그 둘을 구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야기(tale)는 말하기가 중요한 만큼 “보여주기, 장면, 서사의 현재성을 결여”하게 되므로, “*récit*의 가장 순수한 형태”가 된다.(24)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야기에서는 서술이 중요하고, 소설에서는 묘사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제임슨은 사르트르의 이야기 비판으로 되돌아가, 이야기가 서술하는 회복불가능한

“절대적 과거(the absolute past)”를 읽는 독자의 “영원한 현재(the eternal present)”와 대조시킨다.(24)

제임슨은 과거와 현재, 회복불가능성과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이 두 가지 시간성의 대조를 부각시키며, 이야기 대 소설, 혹은 말하기 대 보여주기의 대립구도를 폐기한다. 그 대신 “운명 대 영원한 현재(destiny versus the eternal present)”(26)라는 구도를 새로이 제시한다. 그가 이 새로운 이항대립 구도를 정립하는 이유는 새로운 구도의 “잠재적 출현(a potential emergence)”이 과거의 이항대립 구도의 “잠재적 붕괴(a potential breakdown)”를 유도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26) 제임슨의 서사적 충동의 논의 안에서 이항대립적 담론의 죽음과 탄생이 피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그야말로 그가 자신의 변증법적 시도를 ‘실험(experiment)’이라 명명하고 실천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리하자면, 사실주의의 양대 원천 중 하나인 서사적 충동은, 과거에 이야기와 소설, 말하기와 보여주기의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설명되던 개념이었지만, 제임슨은 고정된 과거를 전복시키고 다시 쓰기 위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현재와 미래를 재창조하기 위해 운명과 영원한 현재의 대립구도를 제안한다. 서사적 충동의 이 새로운 대립구도 속에서 이야기와 소설, 말하기와 보여주기의 대립은 폐지되고 새로운 시간성과 가능성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 3-2. 정동, 혹은 신체의 현재성: 사실주의의 정동 효과

『사실주의』의 2장은 서사적 충동에 이어 사실주의의 양대 원천 중 다른 하나인 ‘정동(情動)’에 대해 논한다. 제임슨은 사실주의가 서사와 정동이라는 두 가지 충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서, 후자가 이야기보

다는 시간성(temporality)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 사실주의의 출현과 보다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다고 피력한다. 이야기, 특히 récit는 이미 있었던 일, 과거의 시간성, 연대기적 시간성, 즉 ‘선형 시간(linear time)’만을 구현하는 데 치중하기 때문이다.(27) 그러나 정동은 “신체의 감각들을 통해 존재가 고조”되는 상태로 현재성이나 시간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28) 제임슨은 정동이 “(19세기의 음악과 미술이 전문화하며 발전한 것처럼)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에 대해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위를 점하게 될 때, 보다 발생 확률이 높은 상태”이며, “[현재 하나의 감각 속에 고립된 신체가 보다 전체화된 일반적 감각들의 물결을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정의한다.(28)

제임슨이 정동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이 “재현(representation)과 문학사(literary history)에 대한 질문들에 수용되어 역사화되기도 하고 제한되기도 하는 이항대립 구도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29) 전통적으로 ‘감정(emotion)’은 ‘느낌(feeling)’과 대립되어 왔는데, 제임슨은 정동이 애매모호한 단어인 ‘느낌’을 대체하는 기술적인 용어라고 설명한다. 이를 테면, 감정은 희·노·애·락 등으로 명명(name)될 수 있는 ‘현상(phenomenon)’이지만, 느낌은 표현되지 않은 감각인 만큼 “모든 종류의 경로에 개방되어 있어 얼마든지 새로이 전파되고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30) 제임슨은 레이 테라다(Rei Terada)가 수행한 느낌의 이론화를 따라, 정동을 “신체적 느낌(bodily feelings)”으로, “감정(혹은 그것의 다른 이름인 정념(passion))을 의식적인 상태(conscious states)”로서 구별짓는다.(32)<sup>17)</sup> 이에 따라 감정은 그 대상을 필요로 하지만, 느낌은 ‘신체

17) 다음을 함께 참조할 것. Rei Terada, *Feeling in Theory: Emotion After the "Death of the Subject,"*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테라다는 이성과 언어를 중시하던 구조주의 철학의 종말과 함께 20세기 말에 주체의 종말이 야기되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그녀는 새로이 급부상하는 정동 이론 속에서 새

의 자극(bodily sensations)'으로 존재하게 된다. 느낌은 명명될 수 없는 것인 만큼, 언어와 반대되는 것이고, 신체는 언어와 대립하는 기제가 된다. 테라다가 느낌 혹은 정동을 '주체의 탄생과 종말'이라는 철학사적 차원에서 규명하는 것처럼, 제임슨도 언어의 위기 속에서 감정에 대한 철학적 관심이 사라지고 "신체에 대한 새로운 역사, 즉 '부르주아의 [혹은 세속적(secular)] 신체'라 할 만한 것의 역사가 기술'되게 되었음을 지적한다.(32) 따라서 "언어와 재현 속에서, 그리고 명명된 감정의 체계와 이름 없는 신체적 상태의 출현이 경쟁하면서, 현상학적 신체의 출현과 함께 정동이 부상하게 되었고, 19세기 중반의 문학 속에서 그러한 출현이 기술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32) 플로베르(Guatave Flaubert)와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가 그 대표적인 작가들이며, 그들의 선임자로 제임슨은 발자크(Honore de Balzac)를 예로 든다.

그러나 제임슨은 세세한 묘사로 유명한 발자크의 소설에서 정동의 출현이 감지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오히려 발자크 소설의 묘사는 감각보다는 의미(meaning), 즉 바르트(Roland Barthes)적인 은유(metaphor)와 환유(metonymy)에 치중하기 때문에 '알레고리'라 주장한다.(33-34)<sup>18)</sup> 19세기 중반, 즉 1850년에 사망한 발자크의 시대 이전에는 "정동이 명명되지도, 언어화되지도 못한 채, 이러저러한 언어적 체계화(codification)의 대상"(34)으로만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임슨은 정동이 단순한 "신체적 자극 내지는 감각적 지각"만은 아니라고 선언한다.(35) 보들레

로운 주체의 정립을 구상한다.

18) 다음을 또한 참조할 것. Roland Barthes, *S/Z: An Essay* trans. Richard Miller, Hill and Wang, 1974. 바르트는 책에서 자신의 전체 이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작가의 죽음 및 독자의 탄생'을, 역시 자신이 주창한 '기호학(semiotics)'적 관점에서 짧게 언급하고 다의적 독해가 가능한 문학 텍스트의 예로 발자크의 소설을 들어 세세하게 분석한다. 기호학의 창시자답게, 바르트는 텍스트의 의미화(signification)를 해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화 과정을 은유와 환유 등에 비유해서 설명한다.



르와 프루스트(Marcel Proust)의 작품에서 후각적 자극이 편재하지만, 그것은 전통적으로 후각을 폄훼해온 문학사에 대한 상징적인 도전에 불과해 구체적으로 꼭 집어 말할 수 있는 신체적 감각(후각)으로 축소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보들레르로 대표되는 프랑스 상징주의는 이처럼 정동에 대한 ‘유명론(唯名論, nominalism)’이라는 차원에서 사실주의와 변별점을 갖게 된 셈이다. 이와 달리, 19세기의 사실주의 소설에서는 정동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폭넓게 활용되기 시작하며 새로이 나타난 서술 방식이 장면과 의식의 묘사 뿐 아니라 “정동의 신(新)사실주의, 고조된 재현의 현재성”에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이다.<sup>(35)</sup> 이제 이름 없었던 새로운 사실성이 부각되기 시작하며 그것이 문학 뿐 아니라 미술과 다른 예술 분야에도 적용되기 시작하게 된다.

이 지점에서 제임슨은 정동의 특성으로 ‘자율화(autonomization)’를 제시한다. 흔히 ‘감응’이라고 번역되는 affect를 주창하고 서구 철학에서 오랫동안 경시되어온 신체의 중요성을 강조한, 17세기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Baruch de Spinoza)의 뒤를 이어 20세기 후반에 정동 이론을 발전시킨 이탈리아 자율주의자들의 철학이 연상되는 부분이다. 사실 국내에서도 2016년 한 해 동안 affect를 두고 어떤 번역어가 가장 적절할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 스피노자 철학 연구자들은 affect를 이미 ‘감응’으로 번역해온 바도 있거니와,<sup>19)</sup> 조정환을 위시한 자율평론 연구자들은 스피노자의 affect 개념을 계승·발전시킨 프랑스 철학자 들뢰즈(Gilles Deleuze)를 경유해 정동 이론을 주창한 이탈리아 자율주의자들과 미국의 정동 이론가들의 연구서를 번역하며 이미 정동이라는 용어를 정착시켰기 때문이다.<sup>20)</sup> 이에 반해 진태원 같은 철학자는 affect를 일본

19) 비교적 최근에 번역된 책이지만, 스피노자의 대표작이므로 다음을 참조할 것. 바뤼흐 스피노자, 『에티카』, 황태연 역, 비홍 출판사, 2014.

어 번역어에서 유래한 ‘정동’보다 ‘정서’로 번역해야 한다며 자율평론 연구자들의 기존 번역에 반기를 들기도 했다.<sup>21)</sup> 그러나 제임슨이 이탈리아 자율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신체의 자율성과 정동의 자율성을 역설하는, 『사실주의』의 2장의 뒷부분을 정독하고 나면, affect가 정서의 움직임, 즉 그야말로 정동(情動)임을 깨닫게 된다.<sup>22)</sup>

제임슨이 말하는 정동의 자율화는 정동이 의미화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들뢰즈나 리오타르(Lyotard)가 이론화하기도 한 스피노자의 용어, ‘강도(intensity)’와 ‘특이성(singularity)’을 획득하게 되는 과정이다. 강도와 특이성으로서의 정동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태이며, “이미 고착화

20) 대표적으로 다음을 참조할 것. 질 들뢰즈, 『비물질 노동과 다중』, 서창현 외 역, 갈무리, 2005. 특히 책의 첫 번째 글인 들뢰즈의 『정동이란 무엇인가』는 그의 강연 녹취록을 엮은 것으로 스피노자로부터 비롯된 affect 개념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제임슨은 분명히 들뢰즈 철학에 정통하고 불어와 독어에도 능통한 학자지만, 『사실주의』에서 정동 개념을 설명할 때는, 들뢰즈의 『정동이란 무엇인가』보다 그의 『시네마』에서 보다 이론적 원천을 얻고 있다. 다음을 참조할 것. Gilles Deleuze, *Cinema 1: The Movement Image* trans. Hugh Tomlinson and Barbara Habberjam,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1. Gilles Deleuze, *Cinema 2: The Time Image* trans. Hugh Tomlinson and Barbara Habberjam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1.

21) 진태원, 『정동인가 정서인가? 스피노자 철학에 대한 초보적 논의』, 『현대사학』 563권, 2016. <http://blog.aladin.co.kr/balmas/8386452>

22) 본 연구자도 이번에 『사실주의』를 꼼꼼하고 세세하게 읽으면서 처음에 affect가 정동이라기보다 정서나 감응에 가까운 것처럼 느껴져서, 본고를 쓰면서 어떤 단어를 써야할지 망설였다는 점을 고백해야 할 것 같다. 이전에는 스피노자와 들뢰즈를 경유한 이탈리아 자율주의자들과 미국의 정동 이론가들, 특히 공동저작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철학자 네그리(Antonio Negri)와 미국 학자, 마이클 하트(Michael Hardt)의 저서들을 읽으며, affect를 정동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확하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제임슨의 『포스트모더니즘』을 읽을 때도 ‘the waning of the affect’에서의 affect가 정동임을 의심한 적이 없었으나, 『사실주의』의 2장을 처음 읽을 때 잠시 동요하게 되었다. 정동을 명시적인 감정과 구분하여 이름붙일 수 없는 느낌으로 해석하는 제임슨의 시도에 잠시 혼란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 장들로 넘어가면서 제임슨이 설명하는 affect가 단순한 정서가 아니라 정서의 움직임, 즉 말 그대로 정동(情動)이라는 것을 다시 확신하게 되었다.

된 심리학적이고 생리학적인 범주들을 효과적으로 동요(unsettle)시키는, ‘본질(essence)’이 아닌 ‘실존(existence)’의 상태이다.(36) 따라서 정동은 경험이나 재현으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신체 일반 그 자체로부터도 독립적이다. 이는 악기를 조율할 때 조율사의 감(感)에 따라 소리와 음을 맞추는 과정과도 유사해서, 제임슨은 정동을 음악에서의 ‘반음계주의(chromaticism)’에 상응한 것으로 본다. 정동의 반음계주의란 “정동의 증대(waxing)와 쇠락이 강도의 문제일 뿐 아니라 반음계의 뉘앙스의 바로 그 규모(scale)와 범위를 오르내리는 정도”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다.(39) 제임슨은 반음계로서의 정동의 예로 바그너(Richard Wagner)의 ‘무한 선율(endless melody)’을 예로 든다. 끊어질 듯, 끊어질 듯하면서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바그너의 무한선율이 바로 정동을 구현하는 ‘영원한 현재(eternal present)’, 즉 “이행(transition) 그 자체가 서서히 이행을 선행하고 후행하는 보다 구체적인 상태(혹은 명명될 수 있는 감정들의 음악)를 대체하는 순수한 현재(a pure present)”를 배태한다는 것이다.(40) 따라서 정동은 “신체 그 자체의 반음계”가 되어 “반음계적으로 신체의 범위를 우울(melancholy)부터 환희(euphoria)까지, 악(惡)의 여정(the bad trip)부터 최고(the high)까지 오르내리게” 된다.(42)

#### 4. 사실주의의 이율배반적 요소들

제임슨이 정동을 사실주의의 특징으로 부각시키는 이유는 루카치의 사실주의론과의 변별점을 형성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제임슨은 직접적으로, 혹은 표면적으로 루카치와 자신의 사실주의론을 대치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의 변별적 시도는 1부에서의 사실주의 소설에 대한 텍스트 분석과 2부의 마지막 장인 ‘역사소설(the historical novel)’에 대한 논의에서 루카치의 역사소설 논의와는 다른 차원의 미래적 역사소설의 예로 SF 소설과 영화를 드는 데에서 엿보인다. 역사소설은 과거의 역사에 대한 기술이나 해석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사르트르를 통해 제임슨이 서사 장르에서의 삼등분적 시간성을 재구성하는 1부 1장의 서사성에 대한 논의의 연장성 상에 있는 것이기도 하다. 제임슨은 시간성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 사르트르의 ‘타자(the other)’에 대한 논의를 끌어와서 텍스트 분석을 시도하는 1부의 다른 장들에 적용시키기도 한다. 크게 봤을 때, 제임슨의 사실주의에 대한 접근은 사르트르적 존재론, 즉 실존주의를 통해 루카치의 사실주의 담론과 거리를 두고 ‘존재론적 사실주의(ontological realism)’라는 개념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듯, 제임슨은 19세기 사실주의 소설을 둘러싼 내부적, 외부적인 이율배반적 요소들로 인해 사실주의가 자멸한 것이 그것의 가장 큰 이율배반이며, 이는 당시의 시대적 정동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고 해석한다.

루카치가 졸라의 ‘자연주의(naturalism)’와 발자크의 ‘사실주의’를 구별 지은 것은 유명하다. 이에 반기를 든 듯, 제임슨은 1부의 7장, 『사실주의와 장르의 와해』(Realism and the Dissolution of Genre)에서 자연주의를 사실주의의 하부장르로 포섭한다. 교양소설(the *Bildungsroman*), 역사소설(the historical novel) 및 간통소설(the novel of adultery)은 물론이요, 사실주의의 반대항으로 여겨지는 멜로드라마까지도 사실주의의 하부장르로 끌어들인다. 7장의 제목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장르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은 사실주의를 다른 서사 장르들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만큼 반(反)변증법적 사고를 하는 것이므로 제임슨은 이를 거부

한다. 이에 따라 책의 1부 3장에서의 졸라에 대한 분석, 특히 졸라 소설의 정동성을 강조하는 것은 제임슨이 졸라를 루카치의 비판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시도로 보인다. 또한 발자크 소설에서 감지될 수 없었던 정동이 졸라의 소설에서는 흘러넘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정동을 사실주의의 대표적 특성으로 부각시킨다.

따라서 제임슨은 정동을 서사적 충동과 함께 유기적으로, 변증법적으로 결합시키며 이를 가장 잘 구현한 사실주의 작가로 졸라와 톨스토이, 페레즈 갈도스, 조지 엘리어트를 꼽는다. 1부의 3장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위의 작가들의 작품들을 분석하며 1장과 2장에서 수행했던 자신의 이론화를 예증한다. 3장에서는 졸라가 그의 사실주의 소설들, 특히 『파리의 배』(*The Belly of Paris*, 1873)를 통해 보여주는 ‘정동의 체계화(codification of affect)’를 해부한다. 3장의 제목인 ‘정동의 체계화’에서부터 감지되는 것처럼, 사실주의 작가의 작품 분석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서 정동에 대해 이론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증명하는 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책 전체에서 가장 야심적인 장이라 볼 수 있다. 졸라는 소설 속에서 풍경과 인물의 상세한 묘사를 통해 독자의 시각, 후각, 청각 등의 감각을 극대화시킬 뿐 아니라 이를 통한 ‘정동적 서사(affective narrative)’를 추구하며 “공간을 가로지르는 신체의 움직임과 교차를 거대하게 축적”(76)해 독자의 감각과 정동을 극대화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졸라의 정동적 서사의 과잉이 오히려 정동을 독자의 신체로부터 분리시키는 효과를 낳게 되어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처럼 중국에는 독자를 무감각하게 만든다고 제임슨은 지적한다. 이는 ‘유전(heredity)’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졸라의 소설에서 사실은 “운명의 다수성(the mutiplicities of destinies)”이 부각되는 모순적 상황과도 일맥상통한다. 나의 행복은 누군가의 불행이기도 하듯이 말이다. 따

라서 제임슨은 졸라 소설의 정동은 “사실주의의 위대한 기획을 위태롭게 하는 순간 그 기획을 강화시키기도 하는 징후학(symptomatology)”으로서의 이율배반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결론 내린다.(76) 4장에서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War and Peace*, 1864-1869)를 통해 그가 “시점의 전횡(the tyranny of "point of view")”을 거부하며 플롯과 장면과의 긴장 속에서 서사적 시간성을 교란(distraction)시키는 ‘가변성(changeability)’에 중점을 두며 그의 소설이 사실주의를 와해(dissolution)시키는 모순적 과정을 분석한다. 5장에서는 위대한 사실주의자로 추대되지 못 했던 스페인의 소설가 베니토 페레즈 갈도스를 사실주의 소설에서의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라 부르며, 마드리드(Madrid)를 중심으로 한 그의 소설 속에서 드러나는 ‘주인공 중심주의의 쇠락(the waning of protagonicity)’을 분석한다. 갈도스의 소설에서 부르주아 주인공보다는 하인이나 하층민과 같은 ‘주변적(minor)’이거나 ‘부차적(secondary)’인 인물들이 서서히 점진적으로 소설의 전경(foreground)을 점령하는 과정에 주목하는 것이다. 제임슨은 이러한 캐릭터 체계에 의해 서구 소설이 “발자크적 체계에서 갈도스적 체계로” 이동한 것이며 “주인공마저도 실상은 부차적 인물에 불과”(108)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루카치가 강조하는 ‘총체성 그 자체(totality itself)’가 아니라 “사실주의 소설이 총체성을 확보하게 하는 정동의 힘”(112)을 확인하게 된다고 설파한다. 6장에서는 영국의 여성 소설가 조지 엘리엇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갈도스적인 다자화된 캐릭터 체계가 심화되며 기존의 선과 악의 이분법적 구분이 와해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제임슨은 사르트르의 ‘자기기만(mauvaise foi, bad faith)’ 개념을 도입하여 엘리엇의 소설을 멜로드라마와 사실주의 사이에서 진동하는 ‘서사적 형성물(narrative formation)’로 해석한다. ‘자기기만’은 타자의 시선과 자신의 내면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아가 스스로의

편의를 위해 발명하게 되는 신념 체계 내지는 자기 정당화의 방식을 뜻한다. 제임슨은 엘리엇의 소설에서 주인공이 자기기만을 통해 비밀스러운 악한(villain)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는 것에 주목하며 이를 통해 19세기 소설이 “죄악과 비밀의 다원성(multiplicity of sins and secrets)”(128)이라는 현대성에 한층 다가서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제임슨이 네 명의 작가를 세세하게 분석하며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사실주의 소설이 포착하는 현실은 결코 일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이고 다층적이며 다면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다원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임슨은 선과 악, 이성과 감정, 육체와 영혼, 형식과 내용, 말하기와 보여주기 등의 이분법을 와해시키며 사실주의와 대립되는 장르들을 사실주의에 포함시킨다. 이에 따라 7장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멜로드라마와 사실주의의 구분이 무용한 것임을 강조한 뒤, 8장에서는 다시 사실주의 소설을 둘러싼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 주관성과 객관성, 연극성(theatricality)과 사실성의 이분법적 담론을 와해시킨다. 따라서 사실주의의 다양한 하부장르의 출현 및 사실주의의 내부적 모순과 더불어 새로운 형식적 실험을 강조하는 미학적 모더니즘이 등장하며 사실주의가 소멸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9장에서는 현재에 와서 19세기적 사실주의가 완전히 사라졌다기보다 제임슨이 ‘실존적 소설(existential novel)’이라 부르는 ‘의사(擬似) 사실주의 서사(pseudo-realistic narratives)’ 및 ‘정동 이후의 사실주의(realism after affect)’라는 형식을 통해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제임슨은 후자에 좀 더 주목하는데, 중립성을 강조하는 신문 기사 스타일의 글쓰기나 헤밍웨이(Ernest Hemingway)와 레이먼드 카버(Raymond Carver), 알렉산더 클루게(Alexander Kluge)의 소설 등에서 나타나는 “서사의 표면에서 감정과 정동을 제거”한 미니멀리즘적 기법을 그 예로 든다.(191) 실존적 소설이나 정동 이후의 사실

주의의 등장은 사실주의 뿐 아니라 모더니즘의 소멸과도 맞닿아 있는데, 이 두 형식의 소멸은 새로운 탄생과 맞물려 있기도 하다. 따라서 제임슨이 사실주의,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사회적 형식의 미학의 역사적 궤도를 추적하며 재정립하는 사실주의는 서사와 정동의 연결과 분리 속에서 시작하는 순간 끝나고, 끝나는 순간 시작하는 끊임없는 변증법적 이율배반의 회로 속에서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결국 그가 사르트르를 통해 ‘죽은 과거’를 배척하는 것처럼, 과거-현재-미래가 열려 있으며 시간성이 다차원적이고 다원적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다.

##### 5. 결론: 제임슨과 시간성, 그리고 다중

맑스주의 이론가로서 제임슨의 ‘사회적 형식의 미학’으로서의 사실주의에 대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열린 역사성과 시간성에 대한 강조로 종결된다. 따라서 『사실주의』에서 정동에 대한 강조와 함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실주의와 모더니즘의 구별을 둘러싼 엇갈림과 양자의 ‘근대성’에 대한 관계이다. 근대는 역사와 운명의 ‘우발성(contingency)’과 그 중대함이 새로이 인식되고 강조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즉, 개인이 고대적 신탁(oracle)이나 중세적 신의 섭리(providence)가 지배하는 운명(destiny)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할 뿐 아니라 집단(collective)이 전근대의 신분질서를 전복하고 혁명을 통해 새 역사를 창조해왔고 창조해야 하는 시기이다.

혁명적 주체이자 역사적 주체로서의 집단, 즉 ‘다중(multitude)’의 가능성에 대한 제임슨의 논의는 『사실주의』의 맨 마지막 장인, 2부의 3장에



서 행하는 ‘역사소설(the historical novel)’에 대한 고찰에서 찾을 수 있다. 인민(people), 군중(crowd), 대중(mass)이라는 표현 대신 ‘다중’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제임슨의 사유 체계가 듀크 대학교의 동료 교수인 마이클 하트(Michael Hardt)는 물론이요, 하트의 정신적 동반자인 이탈리아 자율주의자, 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와도 맞닿아있음을 드러낸다.<sup>23)</sup> 혁명의 주체로서의 집단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제임슨은 2부 1장에서 『시간에 대한 실험: 천명(天命)과 사실주의』(The Experiments of Time: Providence and Realism)라는 제목으로 운명과 시간성의 문제를 사실주의 소설을 통해 재고한다.<sup>24)</sup> 제임슨은 초월성(transcendence)과 내재성(immanence)이라는 대립적 철학 개념을 통해 개인의 운명/천명을 다루는 19세기 사실주의 소설가들이 그 두 개념 사이를 진동하며 결과적으로 소설을 개인의 구원(salvation)에서 ‘다중 플롯과 운명의 직조(interweaving of many plots and many destinies)’로 전환시킨 것을 사실주의의 대성으로 꼽는다.<sup>(222)</sup> 특히 조지 엘리엇의 소설에서 천명의 결과로 개인이 행복해 지는지, 불행해 지는지 판단할 수 없는 무감한(indifferent) 엔딩에 대해서는 ‘스피노자적 승격(Spinozan elevation)’이라

23) 네그리와 하트는 정동 이론가로서 널리 알려진 『제국』을 포함하여 『다중』, 『공통체』의 3부작을 공동집필한 바 있다. 다음을 참조할 것.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제국』, 윤수중 역, 이학사, 2001;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다중 - 제국이 지배하는 시대의 전쟁과 민주주의』, 조정환·정남영·서창현 역, 세종서적, 2008;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공통체 - 자본과 국가 너머의 세상』, 정남영·윤영광 역, 사월의 책, 2014.

24) Providence는 보통 ‘(기독교적 신의) 섭리’로 번역되지만, 개인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하늘의 뜻을 의미하기도 한다. 명사일 때는 ‘섭리’로 써도 큰 문제가 없으나, 형용사형인 providential을 번역할 경우에는 ‘섭리의’ 혹은 ‘섭리적’이라고 쓸 경우에는 온전한 뜻을 전달할 수 없다. 특히 providential novel의 경우 ‘섭리 소설’이라고 번역할 경우 섭리가 자연의 섭리인지 신의 뜻인지 매우 애매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민 끝에 providence의 번역어로 섭리 대신에 타고난 운명과 하늘의 뜻을 동시에 뜻하는 ‘천명’을 선택했다.

고까지 추켜세운다.(230)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인간과 천명의 관계를 다루는 ‘천명 서사(providential narrative)’가 “개인에서 집단으로, 정적인 존재에서 동적이고 역사적으로 실제적인(actual) 존재로 변환”(231)된 만큼 사실주의 소설의 한 장르인 역사소설도 과거와 현재 뿐 아니라 “역사적 미래(historical futures)”(313)까지 포섭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역설한다. 전쟁소설을 다루는 비교적 짧은 분량의 2부의 2장이 1부의 내용을 다소 지루하게 반복·변주하는 것과 달리, 2부의 1장과 3장은 시간성과 역사, 혁명, 유토피아에 대한 제임슨의 지속적인 학문적 관심이 사실주의와 연결되어 표출된 셈이다.

서론에서 그동안의 제임슨의 학문적 견해에 대해 양가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다고 밝히며 이 글을 시작했다. 그러나 사실주의에 대한 제임슨의 입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려하거나 의문의 소지가 될 만한 부분을 찾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가 사실주의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정동을 꼽은 것은 대단히 새로운 시도로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기층 계급의 불행하고 궁핍한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독자나 관객의 현실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한국을 비롯한 서구에서의 기존의 사실주의 논의와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 대단히 갑작스럽거나 매우 동떨어진 학문적 조류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등장인물의 정동(불행, 불안 등)이 독자나 관객에게 다른 방식으로 변이된 정동(분노, 답답함 등)으로 전달됨으로써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행동으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임슨이 사실주의 서사에서 유동적 시간성과 열린 결말을 비롯하여 플롯과 캐릭터(주인공)의 다중성에 주목한 것은 그의 학문적 아젠다를 이해한다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행보이다.

『사실주의』는 제임슨이 아직 여든 살이 되기 전에 출간된 책이지만, 이 책을 비롯하여 2010년대에 거의 1년에 한 권씩 책을 발간하고 있는

80대 노학자의 좌파적·학술적 열정에는 감복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1980년대까지는 절대적 진리에 집착하는 모더니즘적 사유의 옹호자로 보이던 그가 오히려 유연성, 유동성, 다양성, 다중성이라는 포스트모더니즘적 명제에 의탁하기 시작한 것은 전지구적인 명사로서의 제임슨의 학자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도록 하는 면모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생각을 바꾸기 힘들다는 전제 하에서 보자면 말이다. 한 문장이 한 문단을 이루는 그의 만연체와 책의 두께를 고려하면 『사실주의』의 한국어 번역이 결코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원어로 읽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독자라면, 사실주의를 비롯한 예술 형식 전반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라면, 『포스트모더니즘』과 더불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Jameson, Fredric. *The Antinomies of Realism*. New York: Verso, 2013.

### 2. 논문과 단행본

바뤼흐 스피노자, 『에티카』, 황태연 역, 비홍 출판사, 2014.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제국』, 윤수중 역, 이학사, 2001.

\_\_\_\_\_, 『다중 - 제국이 지배하는 시대의 전쟁과 민주주의』, 조정환·정남영·서창현 역, 세종서적, 2008.

\_\_\_\_\_, 『공통체 - 자본과 국가 너머의 세상』, 정남영·윤영광 역, 사월의 책, 2014.

진태원, 『정동인가 정서인가? 스피노자 철학에 대한 초보적 논의』, 『현대시학』 563권, 2016. (<http://blog.aladin.co.kr/balmas/8386452>)

질 들뢰즈 외, 『비물질 노동과 다중』, 서창현 외 역, 갈무리, 2005.

프레드릭 제임슨, 『지정학적 미학 - 세계 체제에서의 영화와 공간』, 조성훈 역, 현대미학사, 2007.

Ahmad, Aijaz. "Jameson's Rhetoric of Otherness and the "National Allegory"." *Social Text*, No. 17, Autumn 1987, pp.3-25.

Barthes, Roland. *S/Z: An Essay* trans. Richard Miller. New York: Hill and Wang, 1974.

Benjamin, Walter. *Illuminations* trans. Harry Zohn. New York: Schocken Books, 1968.

Brooks, Peter. *Realist Vision*. Cambridge: Yale University Press, 2005.

Derrida, Jacques. *Of Grammatology*, trans. Gayatri Chakravorty Spivak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4).

Deleuze, Gilles. *Cinema 1: The Movement Image* trans. Hugh Tomlinson and Barbara Habberjam.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6th printing, 2001.

\_\_\_\_\_, *Cinema 2: The Time Image* trans. Hugh Tomlinson and Barbara Habberjam.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6th printing, 2001.

Dreyfus, Hubert. and Charles Taylor, *Retrieving Realis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5.

Fisher, Mark. *Capitalist Realism: Is There No Alternative?* London: Zero Books, 2009.

Hansen, Miriam Bratu. "Mass Production of the Senses: Classical Cinema as

- Vernacular Modernism," *Modernism/Modernity*, Vol. 6, No. 2, 1999, pp.59-77.
- Irigaray, Luce. *Speculum of the Other Woman* trans. Gillian G. Gill,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
- Jameson, Fredric. "Third-World Literature in the Era of Multinational Capitalism", *Social Text*, No. 15, 1986, pp.65-88.
- \_\_\_\_\_,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1.
- \_\_\_\_\_, *The Geopolitical Aesthetic: Cinema and Space in the World System*,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2.
- \_\_\_\_\_, *The Hegel Variations*, New York: Verso, 2010.
- Kaplan, Caren and Inderpal Grewal. "Transnational Feminist Cultural Studies: Beyond the Marxism/Poststructuralism/Feminism Divides," in *Between Woman and Nation: Nationalisms, Transnational Feminisms, and the State* eds. Caren Kaplan, Norma Alacón, and Mino Moallem,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9, pp.349-363.
- Lee, Yun-Jong. "Woman in Ethno-cultural Peril: South Korean Nationalist Erotic Films of the 1980s,"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21, No. 1, 2016, pp.101-135.
- Lukács, Georg. *The Theory of the Novel: A Historico-Philosophical Essay on the Forms of Great Epic Literature* trans. Anna Bostock (Cambridge: MIT Press, 1971)
- Terada, Rei. *Feeling in Theory: Emotion After the "Death of the Subjec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 Abstract

A Dialectical Reexamination of Realism  
- Fredric Jameson's *The Antinomies of Realism* and "Affect"

Lee, Yun-Jong(Dong-A University)

Drawing on Fredric Jameson's *The Antinomies of Realism* (2013), this paper discusses the concept of "affect" in relation to the recent academic discourse on literary realism. A globally renowned scholar of modernism and postmodernism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Jameson reexamines realism in relation to feeling, or "affect," an aspect of examination that has been absent from the studies of realism over the past century. The concept of affect and its Korean translation have become the source of much controversy in 2016 in South Korea. Jameson discusses "affect," a term that originates in the philosophy of Spinoza, as a key element in distinguishing realism from modernism. This study reconsiders notions of realism in terms of what Jameson calls the "twin sources of realism," namely, "the impulse of narrative" and "affect" including his thought on temporality and fate. Finally, the paper also reconsiders the binary opposition between the individual and the collective.

(Key Words: realism, Fredric Jameson, tale, narrative, novel, feeling, affect, body, destiny, providence, multitude, time, temporality, genre, modernism, postmodernism, dialectics, modernity, contingency)

논문투고일 : 2017년 4월 17일

심사완료일 : 2017년 5월 2일

수정완료일 : 2017년 5월 11일

게재확정일 : 2017년 5월 11일